[카카오 보도자료]

**카카오, 2030 청년 대상 ESG 아카데미 진행**

**- ESG 경영 특강 및 실무자와 대화 등 자리 마련**

**- 디지털 접근성, 친환경, 파트너 상생 관점 ESG 소개해 큰 호응**

**[2024. 7. 26]** 카카오가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ESG 경영에 관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는 지난 25일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와 함께 ‘ESG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ESG 아카데미’는 미래에 기업을 이끌어 갈 청년들에게 ESG 트렌드와 지속가능경영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ESG 경영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들의 견문을 넓히는데 기여하자는 취지로 카카오와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주최했다.

올해 1기로 25명의 수강생을 모집했고, 7월 한 달 동안 주 1회 총 5강의 강연 및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는 현장 견학의 일환으로 사옥 투어를 진행했고 ESG 경영 특강 및 각 분야 실무자와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 육심나 카카오 CA협의체 ESG위원회 ESG추진 담당리더는 ▲기업의 ESG 방향성 ▲ 카카오의 ESG 경영 ▲ 카카오의 ESG에 대한 국내외 평가 등 카카오의 ESG 경영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발표했다.

카카오는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배리어 프리 이니셔티브(barrier free initiative)’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IT 기업 최초로 DAO(Digital Accessibility Officer, 디지털 접근성 책임자)를 선임한 바 있다.

또 ‘액티브 그린 이니셔티브'를 선언하고 지난해부터 이용자가 카카오 서비스를 통해 환경에 기여한 활동을 계량화한 카본인덱스 수치를 발표하는 등 기업 내부의 친환경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들이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 단골손님을 만들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동네 단골시장’ 등 파트너 상생 차원에서의 ESG 활동도 지속 중이다.

발표 이후 수강생들은 ESG 각 분야 실무자와 자유롭게 대화하며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육심나 카카오 CA협의체 ESG위원회 ESG추진 담당리더는 “카카오의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접근성 관점, 환경 관점, 파트너의 관점에서 ESG 경영을 다방면으로 실천 중” 이라며 “ESG 경영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기업의 특수성을 통합 반영해야 한다.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업을 기반으로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하고 회사의 고유성을 내재화한 것과 글로벌 기준을 연계했을 때, 가장 좋은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이 ESG가 가야할 방향성일 것” 이라고 전했다.

설원식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기업의 ESG 경영 현장과 담당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2030 수강생들이 ESG강연 프로그램을 통해 접한 내용을 보다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값진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지난 2월, S&P 글로벌이 발표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SA)’에서 국내 유일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Top 1%’를 달성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타임지가 발표한 ‘2024 세계 최고의 지속가능 선도기업'에 선정됐다. [끝]

**[보도용 이미지]**

\*사진 설명:

‘ESG 아카데미’ 수강생들과 설원식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호림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동양대 AI빅데이터융합학과 교수),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그리고 강연자로 나선 육심나 카카오 CA협의체 ESG추진 담당리더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